

대한민국의 주역

The Protagonist of the Republic of Korea

(주)친환경계획그룹 청연 김학건 대표

친환경건축 문화 조성, 사명감 갖고 견인할 터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의 최신 친환경건축 경향 반영과 국내 친환경 건축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생산 및 절감 방안을 도입해 친환경 설계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친환경계획그룹 청연의 김학건 대표는 친환경건축 컨설턴트로서 일찍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해답을 제시해온 친환경건축 컨설팅 분야의 선도적 인물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턴키(Turn-key) 사업

AP, CPHD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턴키(Turn-key), PF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에서 최적화된 친환경 디자인을 제시할 뿐 아니라 건물에너지 성능 분석, 일조, 채광, 바람, 소음, 열섬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LEED 인증 및 국내 G-SEED,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친환경인증에 대한 컨설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구가하는 친환경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친환경건축 컨설팅 업계의 다제학적 접근 가능한 전문가 그룹

친환경 관련 전문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친환경 컨설팅이 건축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친환경 건축은 에너지, 생태환경, 실내환경과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시공 등의 다양한 분야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극히 한정적이다. 이에 2006년 설립된 친환경건축 및 저에너지 컨설팅 전문 기업인 (주)친환경계획그룹 청연(이하 '청연')은 김학건 대표를 비롯한 공학박사, 건축사, 기술사, 에너지평가사, LEED

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구가하는 친환경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청연은 분야 내 오랜 경험과 기업 자체 부설연구소를 통해 쌓아온 기술력 및 종합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사, 한전KDN 본사사옥,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녹색인증과 지난 5월 완공된 한국수력원자력 청사를 비롯하여 국내 대표 랜드마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설 과정에서 친환경 설계를 맡아 진행하는 등 지난 수년간 국내 친환경건축 컨설팅분야에서 단연 최고의 실적을 보유한 선두기업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이종진 전무, 유중호 전무, 이홍석 상무, 김창걸 상무, 김학건 대표, 김태한 부사장

“푸른세상을 이어가리라(靑連)!”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독창성 부재, 개선 요구 돼

친환경 건축 설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부족으로 에너지 절감 컨설팅만을 친환경 설계의 대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 설계는 건축 과정의 매우 기초적인 단계부터 참여하여 상당 부분에 관여한다. 때문에 종전의 건축가와 각 분야별 기술자들이 수직적인 구조를 이뤄왔던 전통방식과 달리 현재는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하나의 팀 체제로서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평적구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김학건 대표는 설명했다.

“친환경 컨설팅은 완공 이후 건물의 에너지 사용 절감뿐 아니라 디자인과 콘셉트 결정에 바로미터가 되어 공사비 절감은 물론 건축물 자체의 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건물은 국내외의 다양한 친환경 인증을 통해 그 차별성을 검증받고 있다면 서도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는 미국 그린빌딩협회의(US-GBC)에서 개발 시행하고 있는 LEED 제도다. 그는 국내에도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가 시행되고 있지만 앞서의 선진 인증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및 보완하는 수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창성과 개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잦은 지진 등의 지형적 특징이 반영된 독창적인 인증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는 반면 국내 인증제도는 선진제도를 시기에 따라 국내제도에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그쳐 관련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로부터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창의적인 제도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를 미국의 사례처럼 민간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관리되는 인증제도의 사후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의 유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민영화 한다면 자생적인 노력의 결과로 자연히 사후검증과 제도개선을 통한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후검증 등을 통해 실효성을 입증한다면 해당 건물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뿐 아니라 친환경 건축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대중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컨설팅의 대중화와 관련업계 인식 개선에 앞장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함께 2010년 1조원에 불과하던 국내 친환경 산업시장이 2015년 25배가 증가한 25조원의 규모로 성장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가했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진행된 소비자 환경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환경을 위한 소비 실천에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건축 또는 컨설팅 분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부족이 여려한지 알 수 있다.

김학건 대표는 "환경오염을 넘어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서 친환경 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친환경 컨설팅에 대해 대중들은 물론이고, 건축 관련 분야에서조차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친환경 주택보급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원과 홍보효과가 미미하고, 노후되거나 낙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여타의 수익성 사업 외에 지속적으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해당분야의 선도적 기업으로서 남다른 사명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컨설팅의 궁극적 목표인 쾌적한 삶의 공간 창출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서는 김 대표. 그는 현재 (사)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기타 관공서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에 관한 강의 활동을 펼치며 건축 업계 실무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국내 친환경 관련 시장이 성장하기 이전부터 해당분야 진



베다니동산 그린리모델링사업 준공식

입을 선행했던 기업으로서 친환경 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보편화 시키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은 과거보다 고도화된 과학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영역으로 발전했습니다. 때문에 분야 간 수평적 구조와 협업체제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청연의 비전처럼 '푸른세상을 이어가기 위하여' 국내 노후화 된 건물의 쾌적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중들 또한 청연이 아니더라도 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건축 과정의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인류의 삶 속에서 친환경 시장의 성장은 필수불가결한 흐름이 되었다. 이에 새로운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그 성장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청연과 김학건 대표의 행보에 우리 모두 힘을 실어 보낼 때이다. ♥

이섯별 기자 lsb@monthlypeople.com